

Week 42 리딩지저스 성경읽기 문답지 2024년 11월 11일 ~ 11월 16일

구역:

이름:

<p>11 월 11 월요일</p>	<p>히브리서 1장-3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2장) <input type="checkbox"/></p>	<p>* 탁월하신 그리스도 1: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저자에 대하여 다양한 논쟁을 펼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이든 이 책은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신 분인 것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를 밝히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어떻게 구약 성경을 성취하는지 언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과 모세를 마치 집을 지은 자와 집에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탁월하신 분임을 구약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p>
<p>문제</p>	<p>“그가 시험을 받아 ()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p>	
<p>11 월 12 화요일</p>	<p>히브리서 4장-6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4장) <input type="checkbox"/></p>	<p>* 탁월하신 그리스도 2: 4장에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쉬시듯 믿는 이들도 쉬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우리도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셨으나 그들 중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분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어린 아기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힘쓰라고 격려합니다. 6장에서는 당대에도 다양한 이단 사상이 유행했음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처음 가진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합니다.</p>
<p>문제</p>	<p>“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 나아갈 것이니라”</p>	
<p>11 월 13 수요일</p>	<p>히브리서 7장 - 9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9장) <input type="checkbox"/></p>	<p>* 새 언약의 대제사장: 7장은 5장에서 잠깐 언급한 멜기세덱을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사건을 들어,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 출신의 다른 대제사장보다 탁월한 제사장이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으나 영원히 계시는 분이기에 어떤 대제사장들보다 더욱 탁월하신 분임을 연이어 설명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직접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고, 예수님은 제물이시자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속죄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설명합니다.</p>
<p>문제</p>	<p>“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이 있으리니”</p>	

<p>11 월 14 목요일</p>	<p>히브리서 10 장-13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11 장) <input type="checkbox"/></p>	<p>*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히브리서의 저자는 율법을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10:1) 라고 말하며 율법의 한계를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매번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10:12)를 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 이제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11 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녔던 구약의 수많은 성도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알고 있었기에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습니다. 저자는 12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의 유익과 배교를 경고합니다. 또한 독자들을 향한 따뜻한 문안과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p>
<p>문제</p>	<p>“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p>	
<p>11 월 15 금요일</p>	<p>야고보서 1 장- 3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3 장) <input type="checkbox"/></p>	<p>*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 저자 야고보는 편지의 시작부터 인내와 시험에 대하여, 그리고 낮은 형제와 부한 자에 대하여 언급하는 등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태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에 대해 씩 없이 편지를 이어갑니다. 특히 야고보는 2 장에서 부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성도의 삶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2 장 후반부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2:25) 이라고 말하며 믿음과 행함을 계속 언급합니다. 또한 3 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말에 대하여 언급하며 야고보서 전체의 흐르는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의 원리를 설명합니다.</p>
<p>문제</p>	<p>“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으로 심어 의의 ()를 거두느니라”</p>	
<p>11 월 16 토요일</p>	<p>야고보서 4 장- 5 장 <input type="checkbox"/> (핵심장 4 장) <input type="checkbox"/></p>	<p>*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 야고보서는 4 장과 5 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에 대하여 재차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형제와 다투는 근본 원인이 '정욕'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4: 8)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자랑을 삼가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5:7)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면서 형제를 품고 서로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p>
<p>문제</p>	<p>“그러므로 사람이 ()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p>	